

박창식 필사 『창가휘집』 해제 및 분석*

이민규**

<차 례>

1. 서론
2. 『창가휘집』 해제
 - 2.1. 『창가휘집』 소개 및 구성
 - 2.2. 『창가휘집』의 종합 교육적 성격
3. 『창가휘집』 내 창가 분석
 - 3.1. 신문 및 창가집과의 창가 공유 양상
 - 3.2. 충군의식과 영토의식의 공존
 - 3.3. 경쟁 속 생존 도구로서의 교육 강조
4. 결론

<국문초록>

본고는 창가집 『창가휘집』의 해제 논문으로서, 『창가휘집』을 학계에 소개하며, 개괄적으로 분석함을 연구 목적으로 삼았다. 『창가휘집』은 박창식의 형 박창식이 1910년경에 필사하고 편찬한 창가집이다. 『창가휘집』은 창가집으로서서는 어울리지 않게, 산술 문제, 한문 문장, 사설까지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이 산술 문제, 한문 문장, 사설 등은 『창가휘집』이 산술 교육, 한문 교육, 창가 교육까지도 아우르는 종합 교육적 성격을 갖추었음을 보여준다. 『창가휘집』에 실린 창가들은 대개 신문과 다른 창가집들에도 실려있었으며, 충군의식과 영토의식을 표출하고, 경쟁 속 생존 도구로서의 교육을 강조했다. 이러한 주제 의식은 국권 피탈이 멀지 않은 시점에 근대 한국인들이 갈구하던 시대 정신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이 논문은 한국사학회 제 86 차 정기발표회(2017.12.16.)의 발표문을 수정·보완한 원고이다.

**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 박창식, 창가휘집, 잡집, 계몽 가사, 안창호

1. 서론

본고는 창가집 『창가휘집(唱歌彙集)』을 개괄적으로 분석한 해제 논문이다. 『창가휘집』은 박창식(朴昌植)이 1910년경에 필사한 창가집이다. 이 『창가휘집』은 『조선일보』 2013년 8월 15일자 기사를 통해서 소개되었으며,¹⁾ 이후에 이민규의 학위논문이 부분적으로 다루었다.²⁾ 이후 이민규의 다른 연구가 박창식이 필사한 다른 창가집인 『잡집(雜集)』을 다루었지만,³⁾ 『창가휘집』을 다루지는 않았다.

본고가 『창가휘집』을 분석하려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창가휘집』에 관한 분석은 1910년경의 창가집 편찬 양상을 알려준다. 1910년은 조선시대에서 일제강점기로 넘어가던 과도기로서 창가의 성격이 변화하는 시기이다. 그러므로 이 시기의 창가집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창가휘집』에 관한 분석은 창가집과 당시 민간 학교 교육과의 연관성을 알려준다. 1910년경에 민간에서 발행되었다고 추정되는 창가집으로는 1909년의 『열화당창가집(悅話堂唱歌集)』⁴⁾, 1910년의 손봉호 편 『창가(唱歌)』⁵⁾ 등이 있다. 이 창가집들은 당시 민간 학교 교육과의 연관성이

1) 유석재, 「구한말 애국가 6종 새로 발굴」, 『조선일보』, 2013년 8월 15일.

2) 이민규, 「근대 시가에 나타난 국가 표상 변천 과정 - 애국가, 의병가사, 애국계몽가사, 항일가요 등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28 · 75쪽.

3) 이민규, 「박창식 필사 『잡집』 해제 및 분석」, 『한국고전연구』 38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17, 187~223쪽.

4) 장사훈, 『국악대사전』, 세광음악출판사, 1984, 138쪽.

5) 장유정, 「옛날 노래책에 빠지다 - 애국창가집, 「창가」(손봉호孫鳳鎬, 1910년 발행)의 해제」, 『근대서지』 7, 근대서지학회, 2013, 120쪽.

불명확하다. 반면 『창가휘집』은 이 창가집들과는 달리, 민간 학교 교육에서의 종합 교육적 성격을 갖추고 있다. 이 『창가휘집』의 종합 교육적 성격은 1914년에 광성중학교에서 편찬한, 대표적인 교과서이자 창가집인 『최신창가집(最新唱歌集)』⁶⁾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주목해 볼만하다. 세 번째, 『창가휘집』에 관한 분석은 창가집과 함께 주요한 근대 시가 매체였던 신문과의 연관성도 알려준다. 이 세 번째 목적은 두 번째 목적과도 연관되어 있다. 정부에 의해서 발행된 창가집으로는 1906년의 『심상소학창가(尋常小學唱歌)』와 『신편교육창가집(新編教育唱歌集)』, 1910년의 『보통교육창가집(普通教育唱歌集)』이 있다. 이 창가집들은 일본의 창가 교과서들을 베꼈을 뿐이다.⁷⁾ 반면 『창가휘집』은 당시 신문에 실렸던 창가들도 담고 있다. 이는 창가집과 신문이 동일한 창가를 공유함을 알려주며, 이를 통해서 창가집과 신문이 연관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네 번째, 『창가휘집』에 관한 분석은 한 사람이 필사한 창가집들 사이에서도 그 성격에 따라서 구성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잡집』과 『창가휘집』은 여러 창가들을 담고 있는 창가집이라는 점은 같지만, 그 외 내용은 『잡집』과 『창가휘집』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진다. 따라서 본고는 『창가휘집』을 분석하면서 부수적으로 『잡집』도 함께 비교해 보겠다.⁸⁾

6) 이상준이 편찬한 『최신창가집』과는 동명의 다른 창가집이다.

광성중학교의 『최신창가집』은 독립된 책자로 전해지기보다는, 1914년의 일본정부 공문서인 『불령단관계잡건(不逞團關係雜件)』에 부록으로 첩해진 채로 발견되었다. (광성중학교 편, 『최신창가집』, 등사본, 1914(국가보훈처 영인, 1996), 36~37쪽.)

7) 송방송, 『중보 한국음악통사』, 민속원, 2007, 643~644쪽.

8) 『창가휘집』은 현재 독립기념관에서 소장중이다. 귀한 자료를 열람하게 해주신 담당자 분들에게 감사인사를 지면을 통해서 전달해드리고자 한다.

2. 『창가휘집』 해제

2.1. 『창가휘집』 소개 및 구성

『창가휘집』이라는 책명은 창가 갈래를 가리키는 용어인 ‘唱歌’, 모음집을 의미하는 용어인 ‘彙集’의 합성어이다. 『잡집』의 부제가 ‘妙歌彙集’이라는 점을 상기해본다면, 『잡집』과 그 책명이 대응되게끔 명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창가휘집』의 지면은 가로 12.5 센치미터, 세로 18.4 센치미터이다. 『창가휘집』의 총 쪽수는 104쪽이지만, 속표지를 제외하면 100쪽이다. 책의 앞쪽에 박창식의 도장(朴昌植信)이 찍혀있다. 이 박창식의 도장은 다른 창가집인 『잡집』과 그 외 개인시집인 『시집(詩集)』, 『옥포집(玉浦集)』 등에도 찍혀있다. 『창가휘집』의 필사 및 편찬 연도는 1910년도로 추정되는데, ‘國祖檀君四千二百四十三年八月九日’이라는 표기가 있어서이다.⁹⁾

박창식은 한국 최초로 한국인 자본에 의해서 설립된 백화점인 화신백화점의 창업자 박흥식(朴興植)의 형이다. 박흥식의 증언에 따르면, 박창식은 1892년경에 태어나 1910년경에 일본 경찰에게 고문받아 죽었다고 한다.¹⁰⁾ 형인 박창식은 계몽주의 지식인이자 독립 운동가로 살다가 죽었지만, 동생인 박흥식은 친일반민족주의자이자 사업가로 살다가 죽었다.

박창식이 겨우 19세만에 죽은 점, 대성학교가 첫 졸업생들을 배출한 1912년 이전에 박창식이 죽은 점, 대성학교가 일본에 의해서 폐교되면서 관련 기록들이 소실되었다는 점으로 인해서 박창식에 관련된 기록이나 증언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결국 박창식에 관해서 알기 위해서는 박창

9) 박창식 편, 『창가휘집』, 필사본, 1910, 32쪽.

10) 이호, 「박흥식 "박정희에게 100만 신도시 개발 허가받아"」, 『중앙일보』 2006년 10월 23일.

식이 남긴 개인 일기장인 『일기장(日記帳)』을 참조해보는 수 밖에 없다.

박창식의 『일기장』을 보면, 박창식은 대성학교 학생들 및 교감 장응진(張膺震)과 교류하기도 하며, 1910년 8월 29일에는 “夜學校設立事를相議 后 會館에去 ㅎ야”라며 야학 설립에 참여하기도 했다. 박창식은 대성학교 한문 교수의 저서는 물론이고 보통학교 일어책을 옮겨적기도 했는데, 이렇게 교과서를 옮겨적는 일도 야학 설립을 위한 제반 작업으로 보인다. 『잡집』은 바로 이 활동 속에서 편찬되었다.¹¹⁾ 『창가휘집』도 『잡집』과 마찬가지로 보인다.

『창가휘집』의 목차는 아래 표와 같다.

항목명	쪽수(본고가 임의로 매김)
후사총룡(誼砂叢籠)	1
빈 먼	2
상봉유사가(相逢有思歌)	3~4
운동가(運動歌)	4~5
혈성대(血性臺)	5~7
부모은덕가(父母恩德歌)	7~8
애국가(愛國歌)	8~9
애국가(위와 동명)	9~10
감동가(感動歌)	10~12
학도가(學徒歌)	12~14
환영가(歡迎歌)	14~15
권학가(勸學歌)	15~16
은덕가(恩德歌)	16
평양가(平壤歌)	16~17
친구가(親舊歌)	17
대운동가(大運動歌)	17~18

11) 이만규(2017), 앞의 논문, 190~192쪽.

한반도가(韓半島歌)	18~20
운동가(앞과 동명)	20~21
애국가(앞과 동명)	21
학도가(앞과 동명)	22
검무결가(劍舞旣歌)	22~23
수학여행가(修學旅行歌)	23~24
국문가(國文歌)	24~27
빈 면	28
필체론(筆體論)	29
빈 면	30
서언(緒言)	31~32
칠언작용가(七言作用歌) ¹²⁾	33~41
오행체격(五行體格)	41~42
보지(報紙)에효력(效力)	43~45
빈 면 ¹³⁾	46~81
분반사칙잡제해식(分叛四則雜題解式)	82~100

위의 목차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창가휘집』에는 창가, 한문 문장, 사설, 산술 문제 등이 실려있다. 그 중 창가는 총 21곡이 실려있으며, 이 창가 21곡이 총 25쪽을 차지하고 있다. 즉 창가, 한문 문장, 사설, 산술 문제 중에서 창가가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창가휘집』은 책명에서부터 창가집임을 표방하고 있기에, 그에 따라서 창가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⁴⁾

12) 40쪽에서 41쪽까지는 <차하가(此何歌)>라는 칠언절구 한시가 실려있다.

13) 79쪽에 “朴成圭 박성규 할아버지의 손자요”라고 표기되어있다. 박성규는 박창식의 가족원으로 보인다.

14) 『창가휘집』에서 빈 면은 총 40쪽이다. 이 빈 면은 각 항목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있기도 하지만, 「보지에효력」 뒤에는 내용 보완을 위해서 남겨놓았다고 보인다. 다만 이 조차도 추정일 뿐이다.

한편 한문 문장과 사설은 박창식이 필사한 다른 창가집인 『잡집』에도 실려있다. 『잡집』에는 『장자(莊子)』 관련 한문 문장들을 모아놓은 「문자유취(文字類聚)」, 개신유학자 김원극(金源極)이 계몽주의를 설파하는 연설문인 「대동종교회(大同宗敎會)에서」, 서양 음악 이론을 문답식의 대화법으로 설명하는 「음악(音樂)의 해제(階梯)」가 실려있다.¹⁵⁾ 이 중 「문자유취」에는 여러 한문 문장들을 모아놓은 「후사총롱」, 「대동종교회에서」는 계몽주의를 설파하는 「보지에효력」이 그나마 성격상 대응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서양 음악 이론을 문답식의 대화법으로 설명하는 「음악의 해제」에 성격상 대응하는 항목을 『창가휘집』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창가휘집』에는 산술 문제를 담은 「분반사칙잡제해식」, 소강절(邵康節)의 한시들을 모아놓고 소개하는 「필체론」의 「서언」도 성격상 대응하는 항목을 『잡집』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먼저 책명에서부터 창가집을 표방하고 있는 『창가휘집』이 왜 한문 문장, 사설, 산술 문제까지도 함께 다루고 있는지 이유를 알 필요가 있다. 한문 문장과 사설이야 『잡집』에도 실려있는 점을 감안한다고 해도, 산술 문제까지 『창가휘집』에 실려있다는 점은 분명히 독특해보인다. 『창가휘집』에 한문 문장과 산술 문제가 실려있는 이유는 박창식의 『일기장』을 보면 알 수 있다.

夜學校에往 ㅎ야漢文을敎授 ㅎ다¹⁶⁾

夜學校에往 ㅎ야算術을敎授 ㅎ다¹⁷⁾

15) 이민규(2017), 앞의 논문, 194~202쪽.

16) 박창식, 『일기장』, 필사본, 1910, 32, 35, 45, 67쪽.

17) 박창식(1910), 위의 책, 33쪽.

夜學校勸勉歌를製호다¹⁸⁾

夜學에往호야修身漢文兩科를教授호고下學호生에唱歌에注意호라고勸
誡호다¹⁹⁾

(九) 算術生理漢文等을復習호다 夜學校에往호야漢文을教授호다²⁰⁾

夜學校에往호야머름지기青年은活潑치아니치못호리라호는問題로勸誡
호后漢文算術唱歌等學科를教授호다²¹⁾

위의 인용문들을 보면 박창식이 한문, 산술, 창가를 야학에서 함께 가르쳤음을 알 수 있다. 박창식에게 한문, 산술, 창가는 따로 구분된다기보다는, 함께 교육시켜야 할 근대 교육의 주요 과목이었다. 박창식은 한문, 산술, 창가를 함께 교육시키는 종합 교육을 실천했으며, 그 종합 교육 활동 속에서 『창가휘집』도 편찬되었다. 그렇기에 『창가휘집』에는 창가집에게는 불필요해보이는 한문 문장들과 산술 문제들이 창가와 함께 실리게 되었다.

여러 창가집들로 유명한 이상준(李尙俊)이 15세의 나이로 대성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쳤다는 점을 상기해보면,²²⁾ 박창식이 19세의 나이로 대성학교 인근의 야학에서 한문, 산술, 창가를 함께 가르쳤다는 점은 특이해보이지 않는다. 박창식은 1892년생으로서 1884년생인 이상준보다도 어렸고, 이상준이 대성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쳤을 때에 박창식의 나이는 불과 7세

18) 박창식(1910), 앞의 책, 37쪽.

19) 박창식(1910), 앞의 책, 57쪽.

20) 박창식(1910), 앞의 책, 68쪽.

21) 박창식(1910), 앞의 책, 71쪽.

22) 신경숙, 『일제 치하 조선노래를 지켜온 창가교사, 이상준(李尙俊)－이상준 잡가집을 중심으로』, 『국제어문』 41집, 국제어문학회, 2007, 10쪽.

에 불과했다. 이로 보아 박창식이 어렸을 적부터 대성학교와 교류하면서 젊은이가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 현장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봐왔으며, 그에 따라서 자신도 젊어서부터 일찍 야학 교육에 참여했다고 보인다.

이처럼 『창가휘집』은 한문, 산술, 창가 등의 여러 과목들을 아울러서 교육하는, 종합 교육적 성격을 갖추었음을 『창가휘집』의 구성과 박창식의 『일기장』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지금부터는 이 『창가휘집』의 종합 교육적 성격이 내용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보겠다.

2.2. 『창가휘집』의 종합 교육적 성격

『창가휘집』에 창가를 제외한 항목들로는 산술 문제들을 모아놓은 「분반사칙잡제해식」, 「후사총롱」·「서언」·「칠언작용가」·「오행체격」 등의 한문 문장들을 소개하는 글인 「필체론」, 그리고 신문의 사회적 영향력을 설명한 「보지에효력」이 있다. 창가는 『창가휘집』의 핵심이기에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 일단 「후사총롱」, 「필체론」, 「보지에효력」을 구성 순서대로 살펴보려한다. 그리하여 『창가휘집』이 종합 교육적 성격을 구성뿐만 아니라, 내용상으로도 어떻게 갖추고 있는지를 살펴보려한다.

『창가휘집』의 「분반사칙잡제해식」은 산술 문제들을 모아놓은 항목이다. 이 「분반사칙잡제해식」의 앞쪽들에는 산술 문제 100문제들이 있으며,²³⁾ 뒷 쪽들에는 그 산술 문제 100문제들과 답들이 함께 있다.²⁴⁾ 그런데 답 없는 91, 93, 94, 95, 96, 97, 98, 99번 문제에는 ‘上소’이라고 적혀있다. 이로 보아 『창가휘집』의 산술 교육 방식은 문제와 답을 먼저 학생에게 알려주며 산술을 이해하게 한 뒤에, 문제를 풀며 학생이 배운 산술을 스스로 적용시켜볼 수 있게끔 유도했다고 추정된다.

23) 박창식 편(1910), 앞의 책, 82~91쪽.

24) 박창식 편(1910), 앞의 책, 92~100쪽.

『창가회집』의 <후사총몽>은 『잡집』의 <문자유취>와 마찬가지로 여러 한문 문장들을 모아놓은 항목이다. 다만 <후사총몽>은 여러 쪽에 걸쳐있지 않으며, 『장자』뿐만 아니라 여러 서적들에서 문장들을 발췌해왔고, 사자성어도 함께 있다. 그 사자성어들로는 칼이 강물에 떨어지자 뱃전에 그 자리를 표시하고서 나중에 그 칼을 찾으려하는 어리석음을 꼬집는 ‘刻舟求劍’, 그림에 그려진 천리마를 현실에서도 그대로 찾으려하는 어리석음을 꼬집는 ‘按圖索驥’, 우물 안에서 하늘을 안다고 자랑하는 어리석음을 꼬집는 ‘坐井觀天’ 등이 있다. 사자성어 외에 한문 문장들은 아래에 인용한다.

추호를 잘 살피는 자도 자기 속눈썹 스스로 보지 못 하며, 천근을 아홉 번 든 자도 자기 몸 스스로 메지 못 한다.²⁵⁾

부르는 노래의 슬픔은 통곡보다 깊으며, 환한 웃음의 분노는 성난 외침보다 깊다.²⁶⁾

집 떠난지 하루된 자는 산에서 땀감 캐며, 집 떠난지 사흘된 자는 부엌에서 땀감 캔다.²⁷⁾

첫 번째 인용문은 위의 사자성어들과 마찬가지로 타인과 사물에 대해서는 유능하면서 자신에 대해서는 무능한 어리석음을 역설적으로 꼬집고 있다. 두 번째 인용문은 슬퍼서내는 통곡보다 부르는 노래가 더 슬프고,

25) “明察秋毫者不能自見其睫 九奉千斤者不能自扛其身” 박창식 편(1910), 앞의 책, 1쪽.

26) “行歌之悲甚於痛哭 嬉笑之怒甚於臆吃” 박창식 편(1910), 앞의 책, 1쪽.
‘臆’은 ‘憤’으로 보인다. 이런 식으로 같은 음가의 다른 한자를 편의상 대신 쓰는 경우는 박창식의 기록 전반에 걸쳐서 나타난다.

27) “離家一日者薪在山 離家三日者薪在廚” 박창식 편(1910), 앞의 책, 1쪽.

분노해서하는 성난 외침보다 환한 웃음이 더 분노를 담은 역설적인 상황을 그려내고 있다. 세 번째 인용문은 집 떠난지 하루된 자는 산에 있지만, 삼일된 자는 집으로 돌아온다는 역설적인 상황을 그려내고 있다. 『후사총론』의 세 인용문들은 모두 역설적인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후사총론』의 세 인용문들은 모두 문장 구조의 앞뒤가 서로 대칭되게끔 쓰여져있다. 그래서 주어와 술어의 위치를 비롯한 문장 구조를 파악하기도 쉬우며, 따라서 해석하기도 쉽다. 즉 『후사총론』의 세 인용문들은 한문을 모르는 학생도 쉽게 한문을 배울 수 있도록 쓰여져있다.

한편 이 인용문들은 박창식의 독창적인 창작물이 아니라 모두 전고가 있다. 첫 번째 인용문의 앞부분과 유사한 문장은 『삼국지(三國志)』 『위지(魏志)』 주석에서 보인다.²⁸⁾ 박창식은 1910년 9월 22일에 『삼국지』를 읽었는데,²⁹⁾ 아마도 첫 번째 인용문의 앞부분도 『삼국지』나 그 관련 서적을 읽으면서 접했다고 보인다. 첫 번째 인용문의 뒷부분은 북송대 유기(劉跂)의 저서인 『학역집(學易集)』에서 보이는데, 첫 번째 인용문의 뒷부분은 전고의 본래 뜻과는 다르게 문장을 변형시켰다.³⁰⁾

두 번째 인용문도 첫 번째 인용문과 마찬가지로 전고가 있다. 두 번째 인용문의 앞부분과 유사한 글이 금나라 원호문(元好問)의 문집 『유산집(遺山集)』에 실려있다.³¹⁾ 원호문의 작품을 읽고 감명받은 남송의 홍매(洪邁)는 『용재수필(容齋隨筆)』에 자신의 글을 남겼는데,³²⁾ 이 글이 두

28) “目見豪毛而不自見其睫也” 『삼국지』 권28.

『사기』 권41에서 제나라 사신이 월왕 구천에게 건의하는 대사를 인용했다.

29) “三國志를覽하다” 박창식(1910), 앞의 책, 49쪽.

30) “雖千鈞重努力斯自扛” 『학역집』 권2.

31) “長歌之哀甚於痛哭安知憤而吐之者非呼” 『유산집』 권 36.

32) “嬉笑之怒甚於裂眦長歌之哀” 『용재수필』 권32.

이 글의 제목부터가 원호문의 글을 따온 ‘長歌之哀’이다.

번째 인용문의 뒷부분과 유사하다. 이로 보아 박창식이 원호문과 홍매의 글들, 또는 그와 관련된 글들을 접하고 그 글들을 조합하여 두 번째 인용문을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인용문의 전고는 명말청초 황종희(黃宗羲)의 『명유학안(明儒學案)』에서 찾을 수 있다. 『명유학안』에는 세 번째 인용문과 유사한 글이 도가 병들어 구할 수 없게 되었다는 한탄과 함께 실려있다.³³⁾ 즉 이 글은 본래부터 세상의 일그러짐을 꼬집기 위해서 쓰여졌다. 세 번째 인용문은 이 글의 단어 순서만 바꿀 뿐, 주제는 크게 바꾸지 않는다.

세 인용문들은 전고가 되는 글들을 조합하고 변형한다. 기존에 존재하던 글들을 조합하고 변형하던 방식은 『잡집』의 <문자유취>에서도 드러난다. 다만 『잡집』의 <문자유취>는 『장자(莊子)』로부터 발췌했음을 밝히며, 『잡집』뿐만 아니라 『일기장』에도 있다면,³⁴⁾ <후사총론>은 출처를 밝히지 않았고, 출처가 좀 더 다양하며, 『일기장』에는 없다는 차이점만 있을 뿐이다. 박창식이 위의 모든 전고들을 다 직접 접했다고 보기는 힘들며, 아마도 위의 모든 전고들을 종합한 서적을 접했다고 보인다. 다만 그 서적이 무엇인지 확정짓기는 힘들기에, 본고는 위의 전고들을 언급하는 차원에서 논의를 그치겠다.

『후사총론』은 사자성이거나 아니면 앞뒤가 서로 대칭되며 그나마 전고도 찾을 수 있는 한문 문장들을 싣고 있다. 따라서 <후사총론>의 한문 문장들은 한문에 익숙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한문의 기본적인 독해법과 배경 지식을 전달해주는 교육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창가 뒤에 실린 『필체론』은 『후사총론』보다 난해한 글들을 담고 있다.

33) “一日過心齊講堂歌曰離山十里薪在家裡離山一里薪在山裡心齊聞之謂門弟曰小子聽之道病不求耳” 『명유학안』 권32.

34) 이민규(2017), 앞의 논문, 196~199쪽.

『필체론』은 『서언』, 『칠언작용가』, 『오행체격』으로 구성되어있는데, 그 중 『칠언작용가』부터 살펴보겠다.

신기를 씬을 오행의 진실함을 돕과 같이 하면 꾸미고 바라고 힘쓰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네

질병에 해당하는 일을 구설수에 올리지 않으면 흉한 일을 만나도 흉함이 이루어지지 않네

자오에 속한 비는 다 과명이며 미두는 모두 수점성이 되네

이에 명을 구하면 모두 뜻에 이를테니 과거 없이 성공이 됨과 같네

명성을 구하는 수에 녹신이 임하니 비로소 오늘날 과거일이 결단나겠네
과명이 수에 있음을 만나면 자연히 과거 중시에 이르네

땅이 있고 해가 있어 만나서 신기가 일어나니 나그네와 지인을 봐도 살펴 보지 않아도 되네

마성이 원래 구부린 궁각에 있는데 네 점의 원래 쓰임도 또한 같네³⁵⁾

위의 칠언절구들은 모두 각 글자의 점법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이 칠언절구들은 상수역학(象數易學)의 일종인 성명학(姓名學)에서 쓰이는 측자가(測字歌)와 측자결(測字決)의 일종으로 보인다. 『창가휘집』에서는 이 칠언절구들을 소강절이 지었다고 전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소강절에게 가탁한 한시들이라고 보인다. 이 칠언절구들은 본래 구전되다가 나중에 기록으로 옮겨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래서 출처를 찾기도 쉽지 않다. 위의 칠언절구들은 『궁분이육성연사칠도(宮分二六星演四七圖)』에 별첨되어있기는 하지만, 그 뒤의 칠언절구들은 출처를 찾기가 어렵다.

35) “用神如值五行眞 謀望營爲百事成 / 疾病官非兼口舌 總逢凶處不成凶 / 子午所屬是科名 未斗皆爲首点星 / 有此求名皆遂意 如無考試定成空 / 求名之數祿神臨始斷今科考事興 / 若遇科名同在數 自然高薦遂生平 / 有田有日會神興 見客逢人不必尋 / 馬星原是灣弓脚 四点原來用亦同” 박창식 편(1910), 앞의 책, 33~34쪽.

박창식은 소강절의 칠언절구들에 부연설명을 더하기도 했다.

무릇 금, 목, 수, 화, 토의 참된 글자가 모두 마땅하게 쓰이면 이에 오행의 참된 글자의 여러 일들이 모두 길해진다.³⁶⁾

소강절이 지었다고 소개되는 칠언절구들과는 달리 이 글은 역술자 ‘弄玉室主人’이 썼다고 하는데, 이 ‘弄玉室主人’이 누구인지는 알기 힘들다. ‘弄玉室主人’이 박창식일 가능성도 있지만, 박창식은 보통 자신을 ‘丹主’, ‘玉圃’라고 자칭했기에,³⁷⁾ 단정지을 수는 없다. 다만 박창식은 이렇게 상수역학에 관련된 한시들을 한문 수업에서 교육용 자료로서 활용했다고 보이며, 그에 따라서 이러한 한시들이 『창가휘집』에도 실리게 되었다고 보인다. 『필체론』의 『칠언작용가』가 끝나면 『오행체격』이 나오는데, 이 『오행체격』은 위의 인용문처럼 오행의 이치에 관해서 설명한다.

금체는 풍부하고 두터우며 원만하고 가득하다. 목체는 곧고 빼어나다. 수체는 굽고 돌며 날마다 빼어나다. 화체는 터놓고 날카로워 모두 빼어나다. 토체는 사방으로 바르다.

오행의 체가 바로잡히니 태후에서 수를 분별하며 태수에서 결손을 분별한다.³⁸⁾

『오행체격』은 금, 목, 수, 화, 토의 오행이 가진 특성을 차례로 나열한다. 『오행체격』의 한문 문장들은 대부분 장문이 아닌 단문이며, 마지막 문

36) “凡金木水火土眞字皆宜用乃五行眞諸事皆吉” 박창식 편(1910), 앞의 책, 33쪽.

37) 『잡집』 속표지에 ‘丹主 朴昌植’이라는 표기가 있다.(이민규(2017), 앞의 논문, 192쪽.) 박창식의 개인 시집명이 『玉圃集』이기에 ‘玉圃’는 박창식의 호로 보인다.

38) “金體豐厚圓滿 / 木體直秀 / 水体屈曲日秀 / 火體夬利萬秀 / 土體方正 / 五行體格太厚別腫太瘦別缺損” 박창식 편(1910), 앞의 책, 41~42쪽.

장조차도 앞부분과 뒷부분이 서로 대칭한다. 「오행체격」도 해석하기에 간편한 문장 구조를 갖추고 있다.

「철언작용가」, 「오행체격」은 모두 소강절의 상수역학에서 다루는 오행의 이치를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한문 문장들이지만, 『창가휘집』에서는 교육용 자료로서 활용된다. 박창식이 이 한문 문장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무엇을 배울 수 있다고 보았는지는 「필체론」의 「서언」에서 드러난다.

서언

대개 태고의 혼란한 때에는 문자가 없어서 결승이 문자를 대신했다. 중고 이래로 인문이 점차 발전하여 마침내 문자가 있게 되었다. 문자가 있으니 서법도 있게 되었고, 이에 서법이 출현하여 이내 사람의 장수, 요절, 궁구, 통달을 알게 되었다. 장수할 사람은 그 서법에 장수할 모양이 있으며, 요절할 사람은 그 서법에 요절할 모양이 있으며, 궁구할 사람은 그 서법에 궁구할 모양이 있으며, 통달할 사람은 그 서법에 통달할 모양이 있다. 이에 비록 어리석은 어른과 어리석은 아이일지라도 그 서법을 보고 그 사람됨을 알 수 있다. 내가 그런고로 소강절 선생의 필체론을 문필계 사람들에게 알려주려 한다. 편저자 씀³⁹⁾

이 「서언」은 편저자 씀이라고 되어있는만큼, 박창식이 직접 지은 글이라고 보인다. 「서언」은 문자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글을 쓰는 서법이 사람의 됃됨이까지도 보여주게 되었다고 말한다. 박창식은 「필체론」을 통해서 학생들이 필체를 가다듬으며, 글쓰기가 사람됨을 보여주는 도구임을 깨닫

39) “緒言 / 蓋太古洪濛之時世無文字結繩以代文字自中古以來人文漸次發展始有文字焉有文字必有書法於是乎書法出現乃能知其人之壽夭窮達人將壽者其書法有壽態將夭者其書法爲夭態將窮者其書法有窮態將達者其書法有達態此雖愚夫愚孺觀其書法可以知之者也余故固康節邵先生筆體論媒介筆界一般僉員 / 編著者識” 박창식 편(1910), 앞의 책, 31쪽.

게 하려했다.

정말로 서법이 사람의 됃됨이까지도 알려주는지 그리고 그 서법이 소강절의 상수역학에 맞게 해석되어야만 하는지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다. 다만 적어도 박창식이 글과 서법을 비롯한 글쓰기를 높이 평가했음은 「필체론」의 「서언」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박창식이 글쓰기를 중요하게 생각했음은 「필체론」 뒤에 이어지는 「보지에효력」에서도 알 수 있다.

大概報紙라호는者는國家와人民에對호야如何호效力이有호가內로는政府에措施와政革에得失과法令에便否를조금도不蔽호고公正호는筆鋒으로其善호는者는別揚호고惡호는者는別彈호야其에安寧秩序를維持케호는니此는即國家에對호는效力이오外로는地方에情形과風俗에善惡과官吏에臧否를조금도不匿호고公正호는筆鋒으로其善호는者는別稱호고惡호는者는別責호야其에權利享福을享有케호는니此는即人民에對한效力이며此는不啻라海外列強에現勢를昭々히揭載호야비록閭巷에村氓산지라도世界에形便을普知케호는때또는國內에時勢의變遷을不知호고機關에迷夢이方濃한頑固輩호야금昏夢을醒호고昔鎖國封港호던時代가아니오現는卅世紀物競도擇호고生存競爭호는時代인줄을恍然大覺케호야昏夜에矩筏도됨때警世에木鐸도되호는니此亦報紙에一大效力이라⁴⁰⁾

「보지에효력」은 신문의 두 가지 면을 설명한다. 첫 번째, 신문은 글쓰기의 자유를 보장하여 세상에 기여할 글들을 창출해낸다. 신문의 ‘公正호는筆鋒’은 어떤 문제도 숨기지 않고 드러내어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게 한다. 두 번째, 신문은 그 글들을 전파하여 안으로는 국가의 정책과 과실을 바로잡고 밖으로는 인민의 문화와 행정을 증진시킨다. 박창식은 신문이 외국의 문물과 정세를 국가에 알려주어, 인민의 이익이 된다는 계몽주의

40) 박창식 편(1910), 앞의 책, 43~44쪽.

적 관점에서 신문의 효력을 설명한다.

박창식은 『필체론』에서 글의 서법이 사람의 됴됨이를 보여준다고 말하며, 『보지에효력』에서 글을 담은 신문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말한다. 박창식에게 문장을 쓰는 글쓰기는 자기 인생을 가다듬고, 세상과 만날 수 있는 수단이었다. 이 언어 실천의 문제에 있어서 박창식에게 한문과 국문의 경계는 따로 없었다고 보인다. 박창식은 어렸을 적에는 한문을 교육받았고, 성장해서는 계몽주의를 교육시켜야했던 근대 지식인이었다. 『창가휘집』은 바로 이렇게 중세 전통과 근대 신문물을 모두 접했던 박창식의 근대 지식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이 정체성에 따라서 『분반사칙잡제해석』, 『필체론』, 『보지에효력』 등의 상이해보이는 항목들이 『창가휘집』 안에서 공존할 수 있었고, 『창가휘집』은 창가집임을 책명에서부터 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 교육적 성격을 갖출 수 있었다.

하지만 『창가휘집』의 종합 교육적 성격은 후대 창가집으로 계승되지 않는다. 『잡집』의 『음악의 해제』는 서양 음악 이론을 문답식의 대화법으로 설명했고, 이 교육법은 후대 창가집인 『최신창가집』으로 그대로 이어졌다.⁴¹⁾ 광성중학교에서도 여전히 한문, 산술, 창가는 함께 교육되었지만, 광성중학교에서 편찬한 『최신창가집』에는 한문 교육을 위한 한문 문장들을 찾아보기 힘들다. 『최신창가집』은 『창가휘집』보다는 『잡집』처럼, 종합 교육적 성격보다는 창가 교과서 본연의 성격에 더 충실하다. 그러므로 『창가휘집』은 현존하는 창가집들 중에서 한문 교육, 산술 교육, 창가 교육을 종합한 거의 마지막 창가집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본고는 『창가휘집』의 종합 교육적 성격이 내용상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러나 본고는 『창가휘집』이 창가를 통해서 무엇을 교육시키려했는지는 아직 살펴보지 못 했다. 지금부터 본

41) 이만규(2017), 앞의 논문, 200~202쪽.

고는 『창가휘집』에 실린 창가들을 살펴보려한다.

3. 『창가휘집』 내 창가 분석

3.1. 신문 및 창가집과의 창가 공유 양상

『창가휘집』에 실린 창가들은 『창가휘집』에만 실려있다고보다는, 다른 신문 및 창가집에도 실려있다. 그러므로 『창가휘집』에 실린 창가의 노랫말만 분석하기보다는, 전체적인 향유 양상을 대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래 표는 그 전체적인 향유 양상을 보여준다.

『창가휘집』 내 창가명	신문 및 창가집	기록 내 창가명
상봉유사가	『대한매일신보』 국한문판 1909년 8월 13일	相逢有思
운동가	『최신창가집』 88쪽 ⁴²⁾	運動
혈성대	『대한매일신보』 국한문판 1909년 8월 11일 『최신창가집』 93쪽 『신한민보』 1916년 5월 11일	血性대 血誠隊 혈성대
부모은덕가	『신한민보』 1910년 10월 12일 『잡집』 29쪽 『최신창가집』 96쪽	부모은덕가 孝德歌 父母恩德
애국가	『신한민보』 1910년 9월 21일 『최신창가집』 45쪽	국민가 國歌
애국가	『독립신문』 1899년 6월 29일 『대한매일신보』 국한문판 1907년 10월 30일 『잡집』 15~17쪽	무궁화 노리 無窮花歌 愛國歌
감동가	『신한민보』 1910년 10월 12일	이국가
학도가	『최신창가집』 91쪽 『신한민보』 1915년 9월 16일	學徒 학도가
환영가	『최신창가집』 156쪽 『신한민보』 1918년 8월 8일	歡迎 환영가
권학가	『잡집』 2~3쪽 『최신창가집』 53쪽	勸學歌 勸學

은덕가	없음	
평양가	『최신창가집』 67~68쪽 『신한민보』 1915년 11월 25일	牧丹峯 모란봉
친구가	없음	
대운동가	없음	
한반도가	『대한매일신보』 국한문관 1909년 8월 18일 『최신창가집』 66쪽 『신한민보』 1931년 8월 6일	韓半島 韓半島 韓半島歌
운동가	『최신창가집』 116쪽	運動
애국가	『잡집』 3~5쪽	愛國歌
학도가	없음	
검무걸가	『최신창가집』 74쪽 『신한민보』 1915년 6월 7일	擊劍 격검가
수학여행가	『최신창가집』 147쪽	修學旅行
국문가	『대한매일신보』 국한문관 1910년 4월 5일	國文歌

위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창가휘집』에 실린 창가 21곡 중 총 17곡이 『독립신문』, 『대한매일신보』, 『신한민보』 등의 신문들과 『잡집』, 『최신창가집』 같이 학교 교육과 연관된 창가집 등에서 공유되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8곡이 『독립신문』, 『대한매일신보』, 『신한민보』 등의 신문에 창가집보다 앞선 시기에 실려있다. 신문에 실린 창가를 보고 박창식이 『창가휘집』에 옮겨적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당시 학교 교육 현장에서 가창되던 창가를 신문들과 박창식이 따로 따로 옮겨적었을 수도 있다. 정확한 정황은 알 수 없지만, 여러 창가들이 공유된 사실은 적어도 『창가휘집』과 여러 신문들 간의 연관성을 보여준다.

『창가휘집』은 후대 창가집이면서 음악 교과서였던 『최신창가집』과도 몇몇 창가들을 공유한다. 첫 번째 <운동가>, 첫 번째 <학도가>, <환영

42) 쪽수는 영인본에서 매긴대로 매겼다.

가>, <권학가>, 두 번째 <운동가>, <검무결가>, <수학여행가> 등은 그 동안 시기상으로 제일 앞선 기록이 1914년에 편찬된 『최신창가집』였기에, 1914년 이전에도 가창되었는지 의심받아왔다. 하지만 『창가휘집』은 이 창가들이 아무리 늦어도 1910년에는 가창되었음을 보여준다.

『창가휘집』에는 다른 신문 및 창가집에는 없는 창가들도 실려있다. <은덕가>, <친구가>, <대운동가>, <학도가>는 유사한 단어를 가진 창가들은 있지만, 똑같은 구절을 가진 창가들을 찾아보기 힘들다. 이 4곡은 적어도 현재까지는 『창가휘집』를 통해서만 그 노랫말을 확인할 수 있는 창가들이다. 『창가휘집』은 다른 신문 및 창가집의 창가 향유 양상을 따를 뿐만 아니라, 그 창가 향유 양상을 보완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자료인 셈이다.

『창가휘집』에 실린 몇몇 창가들은 그 창가명들이 다른 신문 및 창가집과는 다르기도 하다. <평양가>는 <모란봉>의 후렴을 분리해 변형했지만,⁴³⁾ <모란봉>의 창가명을 그대로 따르지는 않았다. 『신한민보』 1915년 11월 25일자에 따르면, <모란봉>은 안창호가 평양에 있을 적에 작사했다고 하며, 박용구의 연구에 따르면 평양 출신 성악가인 차재일이 부른 <모란봉가>가 바로 이 <모란봉>을 작사한 창가라고 한다.⁴⁴⁾ 이로 보아 <모란봉>은 평양사람들의 고향을 향한 향수를 달래주는 용도로 가창되었던 듯해 보인다. 『창가휘집』은 시기가 그보다 빠른 1910년에 편찬되었지만, <평양가>의 노랫말이 평양을 회상하게 해주기에 창가명도 그에 따라서 명명되었다고 보인다.

43) “(1) 大同江上牧丹峰은 / 半空中에웃독소사 / 獨立峰이되야스니 / 나는너를바라노라 / (後敎) 檀君箕子거룩한자 / 錦繡江山이아닌가 / 이와갓치조흔江山 / 우리들이保全호세” <평양가> 박창식(1910), 앞의 책, 16~17쪽.

44) 박용구, 「비평적 가곡 소사」, 『오늘의 초상』, 일지사, 1989, 69쪽.

<평양가> 외에도 창가명이 다른 경우가 있다. 『창가휘집』의 첫 번째 <애국가>는 현행 공식적 애국가인데, 『신한민보』 1910년 9월 21일자에서는 ‘국민가’라고 표기되어있고, 『최신창가집』에서는 ‘國歌’라고 표기되어있다. 표기는 다르지만 실제 의미는 대동소이하기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한편 두 번째 <애국가>는 『잡집』에서는 ‘愛國歌’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독립신문』 1899년 6월 29일자에서는 배재학당의 방학예식을 설명하면서 ‘무궁화 노리’, 『대한매일신보』 국한문판 1907년 10월 30일에는 ‘無窮花歌’라고 표기되어있다. 『황성신문』 1899년 6월 30일자에는 노랫말은 없지만 『독립신문』 1899년 6월 29일자처럼 배재학당의 방학예식을 설명하면서, ‘無窮花歌’라고 부르고 있다.⁴⁵⁾ 이로 보아 두 번째 <애국가>는 박창식의 창가집인 『창가휘집』과 『잡집』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궁화 가’나 그와 비슷한 창가명으로 지칭됨을 알 수 있다. 이와 반대의 경우도 있다. 『창가휘집』에 실린 <감동가>는 『신한민보』 1910년 10월 12일자에는 ‘이국가’라고 표기되어있는데, 1918년 6월 12일에 강원도 경찰부장이 조선총독, 육군대신 등에게 발신한 일본정부 공문서 『학교교사의 불온교수 처분(學校教師ノ不穩教授ト處分)』에는 ‘感動歌’, 독립군 기록인 『기미년 독립만세 당시 애창곡』에는 ‘감동가’, 주요한의 기록에는 ‘감동가’라고 표기되어있다.⁴⁶⁾ <감동가>의 경우에는 두 번째 <애국가>의 경우와는 반대로 『창가휘집』의 표기가 다수에 속한다고 보인다. 다만 창가명이 기록마다 다르게 표기되어있기는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애국가’라는 명칭이 이 서로 다른 표기들을 연결짓는 공통점임을 알 수 있다. 근대에는 ‘애국가’라는 명칭이 ‘독립군가’라는 명칭과 통용되었는데,⁴⁷⁾ 위의 경우

45) “各英語字典一卷式頒給後無窮花歌로諸員이頌祝하고下午五時에各歸하였더라” 『황성신문』 1899년 6월 30일.

46) 『민족적 반성의 순간』, 『국민보』 1960년 2월 24일.

들도 ‘애국가’라는 명칭을 통용하는 관습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창가휘집』은 다른 신문 및 창가집과 창가를 공유하면서, 당시 창가가 어떻게 향유되었는지를 알려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창가휘집』에는 다른 신문 및 창가집에는 없는 창가도 있으며, 창가명이 다른 점은 당시 창가명을 ‘애국가’라고 짓는 관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창가휘집』은 당시 창가의 향유 양상과 분리해서 살펴볼 수 없는 자료인 셈이다.

3.2. 충군의식과 영토의식의 공존

‘애국가’라는 명칭이 널리 통용되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잡집』에는 총 5곡의 <애국가>들이 실려있으며, 이 <애국가>들은 한결 같이 충군의식을 강조했다.⁴⁷⁾ 『창가휘집』에도 동명의 <애국가>들이 3곡 실려있는데, 그 노랫말들은 아래와 같다.

(1) 東海물과白頭山이 / 마르고달토록 / 하늘님이保護하샤 / 우리나라만세 / 無窮花三千里 / 華麗江山 / 大韓스람大韓으로 / 길리保全하세 / (2) 南山우익저소나무 / 鐵甲을두른듯 / 바람이슬不變흐은 / 우리氣像일세 / (3) 가을하늘空濶한디 / 높고구름업시 / 발근달은우리가슴 / 一片丹心일세 / (4) 이기상과이맘으로 / 님군을섬기며 / 괴로우나즐거우나 / 나라사랑하세 <애국가>⁴⁹⁾

(1) 聖子神孫五百年은 / 우리旺室이요 / 山高水麗東半島는 / 우리추旺일세 / 無窮花三千里 / 華麗江山 / 大韓사람大韓으로 / 길이保全하세 /

47) 민경찬·장전·야스다 히로시·류인옥·김성준 저, 『동아시아와 서양음악의 수용』, 음악세계, 2008, 67쪽.

48) 이민규(2017), 앞의 논문, 210~214쪽.

49) 박창식 편(1910), 앞의 책, 8~9쪽.

(2) 二千萬人오작흔담 / 나라사릉흔세 / 土農工商貴賤업시 / 職分을다하
 세 / (3) 愛國흔는熱心義氣 / 北岳긔치눅고 / 忠君흔는一片丹心 / 東海갓
 치깁허 / (4) 우리나라우리皇上 / 皇天이도우샤 / 萬民同樂萬 "世에 / 太
 平同樂흔세 <애국가>⁵⁰⁾

(1) 아쥬東方저근半島는 / 開國흔지四千年君主國일세 / (2) 檀君箕子
 朝鮮國으로 / 繼 "承 " 獨立國이宛然흔도다 / (3) 三千餘里祖國疆土는 /
 二千萬우리에遺業일로세 / (4) 錦繡江山명승지디는 / 自由國民血誠이가
 득흔도다 / (5) 血誠忠義을다하면 / 國家回復흔길非難흔도다 / (6) 有進無
 退決死心으로 / 혈루용담가지고나아갑시다 / (7) 竭忠輔國우리집이니 / 奴
 臣賊子되느者업시히보세 <애국가>⁵¹⁾

첫 번째 <애국가>는 현행 공식적 애국가와 노랫말이 거의 똑같다. 다
 만 4절에서 ‘님군을섬기며’라며 충군의식을 다지는 표현만이 다를 뿐이다.
 박창식이 교류했던 대성학교에서는 안창호가 ‘임군을 섬기며’를 ‘충성을
 다하여’로 바꿔부르라고 지시했는데,⁵²⁾ 이는 <애국가>에서 충군의식을
 배제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창가휘집』의 첫 번째 <애국가>는 충군의
 식을 배제하려했던 안창호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있다. 첫 번째 <애국
 가>는 1절에서 영토를 애찬하면서도, 4절에서 ‘님군을섬기며’라며 군주에
 게 충성을 맹세한다.

두 번째 <애국가>는 『독립신문』 1899년 6월 29일자⁵³⁾와 『대한매일신

50) 박창식 편(1910), 앞의 책, 9~10쪽.

51) 박창식 편(1910), 앞의 책, 21쪽.

52) 장리욱, 『도산안창호(島山安昌浩)』, 태극출판사, 1969, 120~121쪽.

53) “二이국 흔는 렬심외긔 북악 긔치 눅고 충군 흔는 일편 단심 동희 긔치 깁허 三천만
 인 오직흔 므음 나라 스랑 흔야 스릉공상 귀천 업시 직분만 다 흔세” <무궁화 노래>
 『독립신문』 1899년 6월 29일.

보』 국한문판 1907년 10월 30일자⁵⁴)에도 실려있지만, 2절과 3절이 뒤바뀌어있다. 그런데 『독립신문』 1899년 6월 29일자와 『대한매일신보』 국한문판 1907년 10월 30일자에도 구절들이 약간씩 다르기에,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 두 번째 <애국가>는 군주의 왕실을 ‘우리ㅈ窒’, 한반도인 영토를 ‘우리ㅈ國’이라하며 동렬에 놓고 찬양한다.

세 번째 <애국가>는 『잡집』에도 실려있는 <애국가>이다. 다만 세 번째 <애국가>에는 “當 〃帝國놈흔일흠을 / 世界強國압흐로자랑히보세”와 7절 이하가 빠졌을 뿐이다. 하지만 주제는 크게 다르지 않다. 세 번째 <애국가>는 ‘半島’를 ‘君主國’이라고 부르며, ‘奴臣賊子’가 되지 않겠노라고 충군의식을 다짐한다. 한편 세 번째 <애국가>는 ‘三千餘里祖國疆土’를 ‘遺業’이라고 부르며 영토를 향한 충성도 맹세한다.

위의 세 <애국가>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충군의식과 영토의식을 함께 담고 있다. 특히 첫 번째 <애국가>는 충군의식을 배제하려했던 안창호의 지시와는 다르게, 충군의식을 고수하고 있다. 그런데 『창가휘집』에는 안창호가 작사한 <한반도가>도 실려있다. 그 노랫말은 아래와 같다.

(1) 東海에突出흐 / 나에韓半島야 / 너는나의 / 祖上나라이니 / 나의스
랑흠이 / 오직너뿐일세 / 韓半島야 / (2) 恩澤이깊고나 / 나에韓半島야 /
先祖들과 / 모든民族들이 / 너를依托흐야 / 生長흐얏고나 / 韓半島야 / (3)
歷史가오리된 / 나에韓半島야 / 先祖들의 / 遺跡을볼세에 / 너를 思慕흠이
/ 더욱깊혀진다 / 韓半島야 / (4) 日月긔치밧는 / 나에韓半島야 / 둥근돌이
/ 半空에붙을세 / 너를싱각흠이 / 더욱간절흐다 / 韓半島야 / (5) 山川이秀
麗흐 / 나에韓半島야 / 물은맑고 / 山이雄壯흐데 / 너를向흐忠誠 / 더욱놈

54) “忠君흐는一片丹心 / 北岳긔치높고 / 愛國흐는熱心義氣 / 東海ㄴ티기페 / 千萬人
오죽한마음 / 나라스랑흐여 / 士農工商貴賤업시 / 職分만다흐세” <무궁화가> 『대
한매일신보』 국한문판 1907년 10월 30일.

하진다 / 韓半島야 / (6) 아름답고貴흐 / 나에韓半島야 / 너는나의 / 사랑흐
 는바니 / 나에피를썩러 / 너를빚고저 / 韓半島야 <한반도가>⁵⁵⁾

『창가휘집』의 <한반도가>는 『대한매일신보』 국한문판 1909년 8월 18일자, 『신한민보』 1931년 8월 6일자, 『최신창가집』의 노랫말과 대부분 똑같다. 『신한민보』 1931년 8월 6일자는 안창호가 <한반도가>의 작사자라고 밝혔는데,⁵⁶⁾ 주요한의 증언도 다르지 않다.⁵⁷⁾ 『창가휘집』은 첫 번째 <애국가>에서는 안창호의 지시를 따르지 않지만, 안창호가 작사한 <한반도가>를 실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이 <한반도가>는 군주 대신 영토를 연인처럼 아끼며 충성을 맹세하는 영토의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창가이다. <한반도가>는 군주를 향한 충성을 맹세하지도 않으며, 군주를 아예 언급하지도 않는다. <한반도가>는 오로지 영토만을 연인삼아 충성을 맹세할 뿐이다.

충군의식과 영토의식은 박창식의 『잡집』에서도 공존하는데, 『잡집』이 필사되고 편찬되던 시기에 군주는 여전히 국가의 명목상 통치자였기 때문이다.⁵⁸⁾ 『창가휘집』의 <애국가>들이 담고 있는 충군의식과 <한반도가>의 영토의식도 상반되어보이지만, 『창가휘집』이 편찬된 1910년에 군주는 여전히 국가의 명목상 통치자였기에 공존할 수 밖에 없었다. 비록 『창

55) 박창식 편(1910), 앞의 책, 18~20쪽.

56) 『창가휘집』의 첫 번째 <애국가>인 현행 공식적 애국가의 작사자가 윤치호인지 안창호인지는 아직도 논쟁 중에 있다. 그런데 『신한민보』 1910년 9월 21일자는 윤치호가 작사자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신한민보』가 안창호와 무관한 창가를 안창호에게 가탁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57) 독립군가 보존회 편, 『광복의 메아리, 교학사, 1982, 139쪽.

58) 『잡집』의 <애국가>들도 충군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충군의식을 배제하려했던 안창호도 흥사단 입단지원자와의 대화에서는 충군의식을 애국의식과 동일시하기도 했다.(이민규(2017), 앞의 논문, 210~218쪽.)

가휘집』에는 『잡집』과는 달리 군주의 생일을 경축하는 <건원절경축가(建元節慶祝歌)>가 없다고 할지라도, 충군의식과 영토의식이 공존한다는 점만큼은 변함 없어 보인다.⁵⁹⁾

3.3. 경쟁 속 생존 도구로서의 교육 강조

근대에는 계몽주의 교육과 군대식 교육 간의 경계가 없었기에, 『잡집』에는 <행보가>, <군인가> 같이 군대식 교육을 함양시키는 창가들과 <권학가> 같이 계몽주의 교육을 함양시키는 창가들이 공존했다. 『잡집』은 이 창가들을 통해서 군대식 교육과 계몽주의 교육을 병행했다.⁶⁰⁾ 『창가휘집』에 실린 창가도 군가처럼 과격한 표현을 담고 있다.

(3) 血性臺의祖國精神 / 싸에깁히잡기여 / 山은능히썩드티도 / 그정신은
 못썩어 / 壯吼세라 " " " " / 血性臺의그精神 (6) 大砲소리부두치며
 / 칼이압홀막으되 / 冒險호는血性臺는 / 突擊城만부르네 / 壯吼세라 "
 " " " / 血性臺의猛進力 <혈성대>⁶¹⁾

59) “快호다長劍을빅게들었네 / 오날 " 우리손에잡은칼은 / 억億滿洲에크게活動호든 / 東明王에같이彷彿호고나 / 後斂 번쩍 " " 번개갓치번쩍 / " " " " " " " " " " / 快호같이우리손에빛노여 / 帝國威權을펼치노고나” <검무결가> 박창식 편(1910), 앞의 책, 22~23쪽.

‘帝國威權’이 『최신창가집』의 <격검가>에는 ‘제국에위엄’, 『신한민보』 1915년 6월 7일자 의 <격검가>에는 ‘독립의위권’이라고 표기되어있다. 『신한민보』 1915년 6월 7일자에는 안창호가 작사했다고 하는데, 안창호가 처음에 ‘帝國威權’이라고 지었다가 국권 피탈 이후에 ‘독립의위권’이라고 개사했는지, 아니면 본래 ‘독립의위권’이었는데 ‘帝國威權’으로 전파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창가휘집』이 국가를 군주국인 ‘帝國’으로 호칭하던 시절에 편찬되어서 충군의식에 충실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준다.

60) 이민규(2017), 앞의 논문, 202~205쪽.

61) 박창식 편(1910), 앞의 책, 5~6쪽.

<혈성대>는 안창호가 작사했다고 한다.(주요한, 『안도산전서(중)』, 홍사단출판부,

<혈성대>의 6절이 『대한매일신보』 국한문판 1909년 08월 11일자에는 “奮不顧身나가네 / 장흥세라장흥세라 / 혈性隊의勇進力”로서 다르게 표기되어있어서, 『창가휘집』의 <혈성대>는 『최신창가집』의 노랫말과 더 유사하다. <혈성대>는 ‘祖國精神’을 ‘썩’에 담아 ‘大砲소리’가 울려퍼지고 ‘칼’이 휘둘리는 전장에서 돌격하자고 노래한다. <혈성대>는 전투나 훈련에 어울리는 군가 같은 노랫말을 갖고 있으며, 이는 군대식 교육을 함양시키기 위한 창가임을 보여준다. <혈성대>는 『잡집』에서 <행보가>와 <군인가>가 맡았던 역할을 대신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창가휘집』에서는 <혈성대> 외에 군대식 교육을 함양시키는 창가를 찾아보기는 힘들다. 그러나 <혈성대>에서 등장했던 단어들은 그대로 계몽주의 교육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활용된다. 아래는 그 예시다.

(1) 學徒야 # # # 청년學徒야 / 이썩가어느썩느精神차려서 / 머무적 # # # 遲滯말고서 / 압흐로썩리활 # 나아갑시다 / (2) 青春의時節이흐번가고서 / 다시는도라오지아니흐노라 / 힌머리글그매한탄마도록 / 이썩을일치 말고힘써봅시다 / (3) 青年의氣像은壯快흐고나 / 압길이비룩멀고놉홀지라도 / 오루고 # # # 다시올나가 / 文明山上 # 峯에올나서고야 / (4) 흥악흐원수가압홀막으며 / 大砲나銃과칼이猛烈 흐여도 / 勇奮흐氣槩로했치고나가 / 더빛는우승기를검쳐쥐고야 <운동가>⁶²⁾

첫 번째 <운동가>의 2절은 ‘힌머리글그매한탄마도록’이라면서 개인의 청춘을 낭비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이 2절과 유사한 표현은 <은덕가>에서도 보인다.⁶³⁾ 첫 번째 <운동가>와 <은덕가>는 모두 시대가 경쟁 공간

1999, 57~58쪽.)

62) 박창식 편(1910), 앞의 책, 4~5쪽.

63) “(1) 우리에압길가라치는 / 先生님압해나아갑제다 / 學校에가기遲滯말세 / 恩德님

이므로 청년들이 분발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첫 번째 <운동가>에서 ‘大砲’, ‘銃’, ‘칼’은 전장이 아니라 ‘청년學徒’의 자기 발전을 방해하는 외세의 압력을 비유한다. 첫 번째 <운동가>에서 ‘청년學徒’는 늙기 전에 분발하여 ‘文明山’에 올라서서 ‘우승기’를 거머쥐어야 한다. 비록 첫 번째 <운동가>는 전장을 그려내지는 않지만, 전장의 분위기를 통해서 ‘청년學徒’가 마주한 시대를 치열한 경쟁 공간으로 표현한다. 첫 번째 <운동가>는 시대를 경쟁 공간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갖추고 있다. 시대를 경쟁 공간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두 번째 <운동가>와 <대운동가>에서도 보인다.

(1) 大韓旺民우리青年學徒야 / 이썩가언젠가競爭時代르세 / 깃히든잠
 얼는끼고精神츄러서 / 急 迅競爭場에한번나아가서 / 後斂 나아가세 〃
 〃 〃 / 競爭心을奮發호야나아가세 / 目的을達호기까지나아가세 / (2) 하
 님이너신貴호人物로 / 前進올다호면질것업갓네 / 압선者를부러말고急
 히나아가 / 一等賞을다려活動히보세 / (3) 壯호도다우리少年同胞야 / 오날
 이우리의깃분날일세 / 至今갓치우리勇氣恒常가지만 / 뉘게든지우리지지만
 캣네 <운동가>⁶⁴⁾

(1) 牧丹峰下大同江過너는쓸우에 / 어화좃타오날 〃 이우리날일세 / 太極
 旗는올깃불깃불은불은디 / 男女老少觀光者가山海갓고나 / 勇壯호滋味잇
 는各科運動에 / 一等旗늘取호는者어니누군고 / 澆 〃 호고活潑호다三百男

은우리學徒는 / 깃썩뛰며노리함시다 / 學校에게신先生님을 / 永 〃 이못시리 / (2) 아
 히를불러호시는말 / 기썩게듯고順學호세 / 櫓捷을호매경게호디 / 줄겅게나아세 / (3) 기
 암이열름끓호야 / 穀食을만히싸아두세 / 우리도工夫힘써호야 / 白髮을預
 備히” <은덕가> 박창식 편(1910), 앞의 책, 16쪽.

<은덕가>는 선생님의 권위를 존중해야한다고 가르치면서도, 학생들에게 ‘白髮을預
 備히’라며 노년을 대비하라고 경고한다.

64) 박창식 편(1910), 앞의 책, 20~21쪽.

兒에 / 運動소리萬歲소리天地動흐메 / (2) 競爭場에셔러진者落心말어라
 / 흥번失敗두번失敗成功有니라 / 우리들은運動흥工夫잘흐야 / 흥마음과
 흥뜻으로힘을아올러 / 우리나라우리同胞흥번爲흐야 / 競爭場에優勝旗를
 갖저봅시다 / 萬歲 " " 萬歲 " " 우리나라에 / 萬歲 " " 萬歲 " " 우리學徒야
 <대운동가>⁶⁵⁾

두 번째 <운동가>가 호명하는 대상도 첫 번째 <운동가>와 마찬가지로 ‘青年學徒’이다. 두 번째 <운동가>는 그들이 살던 시대를 이에 ‘競爭時代’라고 명명하며, 청년들이 ‘競爭心’을 갖추어 나아가야한다고 주문한다.

<대운동가>는 『창가휘집』에만 있는 창가이지만, 시대를 경쟁 공간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앞서 살펴본 창가들과 다르지 않다. <대운동가>는 “競爭場에셔러진者落心말어라”라며 시대에 뒤쳐진 자들을 격려하기도 하지만, 이를 통해 시대를 ‘競爭場’으로 바라봄은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대운동가>에서 ‘三百男兒’는 ‘競爭場에優勝旗’를 가지기 위해서 ‘運動흥工夫’를 해야한다. <대운동가>에서 교육은 국가 간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도구이다.

시대를 경쟁 공간으로 보고, 교육을 그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도구로 보는 시각은 ‘運動’이라는 단어 못지 않게 직설적으로 교육을 권장하는 창가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1) 大韓青年學徒들아 / 同胞兄弟사랑흐고 / 우리들에一片丹心 / 獨立
 흥기盟約흐세 / 華麗흐다우리江山 / 사랑흥다우리同胞 / 지나서나넛지말
 고 / 길리保全흐옵시다 / 학도야 " " " 우리主義는 / 道德을빅우고학聞넛
 퍼서 / 三千里江山의조흔疆土를 / 우리學生들이保全흐시다 <학도가>⁶⁶⁾

65) 박창식 편(1910), 앞의 책, 17~18쪽.

66) 박창식 편(1910), 앞의 책, 12~14쪽.

(1) 歲月이流水갓흐야 / 살갓치지느네 / 光陰이나을爲흐야 / 遲滯키萬
 無세 / (2) 오날을흔번보던면 / 쏘다시못오네 / 金보다貴흐歲月을 / 착실이
 익기세 / (3) 우리에青年時代는 / 暫時와갓고나 / 期會를잇씩일흐면 / 쏘엇
 기어렵소 / (4) 生存을競爭흐난씩 / 할일만흔中 / 知識이웃덤이로다 / 비흐
 야하켓네 <권학가>67)

우리大韓青年들은奮發心으로 / 압헤나기接戰흠을預備흠시다 / 큰勝戰
 을흐는씩까지압헤나가서 / 冤讎權勢를減흐세 / 後斂 압호로 " " " 다함께
 나가서 / " " " " " " " " " " / 큰勝戰을흐는씩까지압헤나가서 / 冤
 讎權勢를減흐세 <학도가>68)

첫 번째 <학도가>는 『신한민보』 1915년 9월 16일자에 안창호 작사 ·
 이성식 작곡이라고 표기되어있다. 안창호는 대성학교의 부교장이었고, 이
 성식은 대성학교의 학생이었다. 이성식은 지금은 사라진 『중등창가』라는
 창가집을 편찬하기도 했기에,⁶⁹⁾ 대성학교와 교류하면서 창가집을 편찬한
 박창식과 비슷한 길을 밟았다고 볼 수 있다. 이성식이 작곡한 첫 번째
 <학도가>는 대성학교 학생들 모임에서 가창되기도 했으니,⁷⁰⁾ 첫 번째
 <학도가>가 얼마나 당시 학교 교육에서 중요한 창가로 간주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67) 박창식 편(1910), 앞의 책, 15~16쪽.
 68) 박창식 편(1910), 앞의 책, 22쪽.
 69) “中等唱歌 全一冊 李聖植著作右出版物은許可를受치아니하고出版흐者이기出版
 法第十三條를依호야其發賣頒布를禁止호고” 『관보』 4656호, 1910년 4월 19일.
 70) “당야九時에단友와家족들모 " 친우들슴四十八人이나모힌中主석林창모군에사회로게
 회한후本部로부터來着호祝電낭독을비롯하여순서를진행中李成植君이전일大成學
 校生徒들이불으든島山先生이창사인學徒哥를흥취가잇고도멋이오게독창이긋나자
 회석은흥취에마비되어종당은一同이우뢰갓흔소래로불으고야말앗다” 『홍사단 창립
 제22주년 축하식』, 1935년 5월 13일.

첫 번째 <학도가>는 ‘학도’들이 ‘道德’과 ‘학聞’을 배워서 국가와 영토를 지켜야한다고 노래한다. 첫 번째 <학도가>에서 교육은 국가와 영토를 지키는 도구이다. 첫 번째 <학도가>는 비록 시대가 국가 간의 경쟁 공간이라고 단정짓지는 않지만, 적어도 교육을 경쟁 속 생존 도구로서 보고 있음은 분명하다.

<권학가>는 『잡집』에 실린 노랫말과 비교해보면, 몇몇 한자 표기가 바뀌고 5절 이하가 탈락되어있다. 하지만 노랫말의 주제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 <권학가>는 학생들이 세월을 보내지만 말고 아껴서, “生存을競爭”하는 시대에 살아남아야한다고 노래한다. 그리고 국가가 살아남게 해줄 수 있는 도구는 역시 ‘知識’이다. <권학가>는 시대를 경쟁 공간으로 바라보는 시각과 교육을 경쟁 속 생존 도구로 바라보는 시각을 답습한다.

두 번째 <학도가>는 오로지 『창가휘집』에만 실려있다. 두 번째 <학도가>는 <학도가>라는 창가명이 어울리지 않게, 공부하자는 내용이 없다. 두 번째 <학도가>는 ‘靑年’들이 ‘奮發心’으로 ‘接戰’을 ‘預備’해야한다고 말한다. 실제 전쟁에 대비하자기보다는 시대라는 경쟁 공간을 전쟁에 비유했다고 보인다. 그래서 두 번째 <학도가>는 ‘大砲’, ‘銃’, ‘칼’ 같이 전쟁을 연상하게 하는 단어는 없지만, 시대에서 살아남는 생존을 바로 ‘勝戰’으로 비유한다. 두 번째 <학도가>의 노랫말은 경쟁에서의 전투적 승리를 갈망하기에, 학도병을 위한 군가에 어울려보인다.

지금까지 시대를 국가 간의 경쟁 공간으로 바라보는 시각과 교육을 그 경쟁 속 생존 도구로 보는 시각이 『창가휘집』에서 나타남을 살펴보았다. 경쟁의 논리를 내세우며 학생들의 공부를 촉진시켜서 국가를 발전시킨다는 발상은 1898년의 『독립신문』에서부터 등장했으며, 1908년에는 『노동야학독본』 같은 교과서에까지 실리게 되었다.⁷¹⁾ 창가집이었던 『창가휘집』

71) 최규진, 『우승열패의 역사인식과 “문명화”의 길』, 『사총』 79권, 고려대학교 역사연구

도 이러한 계몽주의 교육적 흐름 속에서 위와 같은 창가들을 선별하게 되었다고 보인다. 그리고 『잡집』도 이 계몽주의 교육적 흐름에서 예외일 수는 없었다. 『창가휘집』은 『잡집』과 창가 내용상으로는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는 셈이다.

4. 결론

지금까지 『창가휘집』이라는 자료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창가휘집』은 1910년에 박홍식의 형인 박창식이 필사하고 편찬한 창가집이다. 『창가휘집』은 창가집으로서 어울리지 않게, 산술 문제, 한문 문장, 사설까지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이 산술 문제, 한문 문장, 사설 등은 『창가휘집』이 산술 교육, 한문 교육, 창가 교육까지도 아우르는 종합 교육적 성격을 갖추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창가휘집』의 종합 교육적 성격은 『잡집』과는 대비되는 『창가휘집』만의 특성이었다. 다만 『잡집』의 음악 교육법이 후대 창가집인 『최신창가집』으로 계승되는 반면에, 『창가휘집』의 종합 교육적 성격은 『최신창가집』으로 계승되지 못 했다. 『잡집』과 『창가휘집』은 박창식이 같이 편찬한 창가집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격이 달랐고, 그에 따라서 성격이 후대에 계승되는 여부도 달라졌다. 이는 한 사람이 같이 편찬한 창가집이라고 할지라도,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창가휘집』에 실린 창가들은 『창가휘집』뿐만 아니라 다른 신문 및 창가집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 이 창가들은 『창가휘집』뿐만 아니라 당시 창가의 향유 양상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게 해주었다. 『창가휘집』에 실린 창가들은 내용상으로도 『잡집』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창가휘집』은

소, 2013, 117~120쪽.

『잡집』처럼 충군의식과 영토의식이 공존했으며, 『잡집』처럼 교육을 경쟁 속 생존 도구로 보았다. 이는 둘 다 당시 시대적 정황을 거스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군주가 여전히 국가의 명목상 통치자로 남아있는 한, 창가의 노랫말에서 충군의식을 버릴 수는 없다. 경쟁의 논리를 내세우며 학생들의 공부를 촉진시켜서 국가를 발전시킨다는 발상이 있는 한, 창가의 노랫말에서 교육을 경쟁 속 생존 도구로서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창가휘집』과 『잡집』이 창가 노랫말에서 유사한 주제들을 공유하고 있는 이유는 당시 시대적 정황에 걸맞게 해석되어야만 한다.

이처럼 『창가휘집』은 1910년경의 창가집 편찬 양상, 창가집과 당시 민간 학교 교육과의 연관성, 창가집과 함께 주요한 근대 시가 매체였던 신문과의 연관성, 한 사람이 필사한 창가집들 사이에서도 그 성격에 따라서 구성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비록 본고의 분석이 미흡했지만, 앞으로 이 자료에 대한 연구가 이어지기를 바라며 결론을 마치고자 한다.

참고문헌

1. 자료

『관보』

『국민보』

『대한매일신보』

『독립신문』

『명유학안』

『삼국지』

『신한민보』

『용재수필』

『유산집』

『학역집』

『황성신문』

『홍사단 창립 제22주년 축하식』, 1935년 5월 13일.

광성중학교 편, 『최신창가집』, 등사본, 1914(국가보훈처 영인, 1996).

박창식, 『일기장』, 필사본, 1910.

박창식 편, 『잡집』, 필사본, 연대미상.

박창식 편, 『창가회집』, 필사본, 1910.

2. 단행본 및 논문

독립군가 보존회 편, 『광복의 메아리』, 교학사, 1982, 1~215쪽.

송방송, 『증보 한국음악통사』, 민속원, 2007, 1~982쪽.

장사훈, 『국악대사전』, 세광음악출판사, 1984, 1~1096쪽.

주요한, 『안도산전서(중)』, 홍사단출판부, 1999, 1~462쪽.

민경찬 · 장전 · 야스다 히로시 · 류인옥 · 김성준 저, 『동아시아와 서양음악의 수용』, 음악세계, 2008, 1~422쪽.

박용구, 『오늘의 초상』, 일지사, 1989, 1~314쪽.

신경숙, 『일제 치하 조선노래를 지켜온 창가교사, 이상준(李尙俊)－이상준 잡가집을 중심으로』, 『국제어문』 41집, 국제어문학회, 2007, 5~31쪽.

유석재, 『구한말 애국가 6종 새로 발굴』, 『조선일보』, 2013년 8월 15일.

- 이민규, 「근대 시가에 나타난 국가 표상 변천 과정 - 애국가, 의병가사, 애국계몽가사, 항일가요 등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1~133쪽.
- 이민규, 「박창식 필사 『잡집』 해제 및 분석」, 『한국고전연구』 38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17, 187~223쪽.
- 이호, 「박흥식 "박정희에게 100만 신도시 개발 허가받아"」, 『중앙일보』 2006년 10월 23일.
- 장리욱, 『도산안창호(島山安昌浩)』, 태극출판사, 1969, 1~414쪽.
- 장유정, 「옛날 노래책에 빠지다 - 애국창가집, 『창가』(손봉호孫鳳鎬, 1910년 발행)의 해제」, 『근대서지』 7, 근대서지학회, 2013, 575~583쪽.
- 최규진, 「우승열패의 역사인식과 "문명화"의 길」, 『사충』 79권,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2013, 109~148쪽.

ABSTRACT

Material Value and Significance of *Changgahwijip*

Lee, Min-gyu

This thesis is an introductory paper of *Changgahwijip*. This thesis' purpose is introduction of *Changgahwijip* to the academic world and analyze it in general. *Changgahwijip* is the Changga anthology collected by Park Chang Sik who is older brother of Park Heung Sik around 1910. Changga in *Changgahwijip* were usually placed in newspapers and other Changga anthology, highlighting loyalty rituals and territorial awareness, and emphasizing education as a competitive survival tool. This subject consciousness reflected the spirit of the era before colonization by Japan.

Key Words Park Chang Sik, *Changgahwijip*, Japjip, Enlightenment gasa, An Chang Ho

논문투고일 : 2018.09.30
심사완료일 : 2018.11.10
게재확정일 : 2018.11.19